

‘저비용·고효율’ 선수단 구성... 신규 후원 유치 절실

‘K리그 잔류’ 광주FC 2024시즌 결산

올해 K리그1 9위에 그치며 1부리그 잔류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광주FC의 내년 목표는 파이널A 진출이 될 전망이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산재한 만큼 현실적인 꿈을 꾀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는 내년에도 3개 대회를 병행한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가 2월까지 이어지고 16강 진출 시 3월, 파이널 스테이지(8강 이상) 진출 시 4-5월까지 일정을 치른다.

또 ACLE와 FIFA(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의 영향으로 K리그1이 올해보다 약 2주 빠른 2월15일 개막하고, 코리아컵도 K리그1 구단들이 합류하는 3라운드 4월 중순께 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가 효율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K리그1 우승, ACLE 진출 등 거대한 목표보다는 파이널A 진출로 1부리그 잔류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리그와 ACLE, 코리아컵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시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세 개 대회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

<7·끝> 새 시즌 당면 과제

3개 대회 병행 선택과 집중 필요
현실적인 목표는 ‘파이널A 진출’
연봉 총액 규모 30% 감소 대비
“구단-시-시의회 긴밀한 협력을”

성이 높다.

저비용 고효율의 선수단 구성도 필수 과제다. 광주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총 수익의 70%로 70~80억원 선이 될 전망이다. 올해 선수단 연봉 총액으로 알려진 약 120억원의 3분의 1이 감소된다.

자금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광주는 현재 허율과 이희균이 울산HDFC 이적이 확정됐고 박태준과 이진희는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군 문제를 해결한다. 정호연과 자시르 아사니, 최경록 등 주축 자원들도 시장에 나왔고 김진호와 변준수, 이민기 등 역시 이적설의 대상이다.

젊은 피 발굴도 절실하다. 정지훈과 안혁주, 문민서, 김윤호가 내년에도 22세 이하 의무 출전 제도에 해당되지만 네 명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만큼 고교와 대학 무



광주FC 선수단이 지난달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시즌 최종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뒤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대에서 추가적인 자원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신규 후원 유치도 필수 과제다. 광주는 현재 약 62억 규모의 자본금이 완전 잠식 상태이며 54억의 부채를 안고 있다. 구단 주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매각에 대해서도 고려했지만 기업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2030년까지 매년 약 20억원을 메꿔야 하는데 자금 마련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후원금이다.

현재 최대 후원사인 광주은행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올해 대구FC는 iM뱅크로부터 유니폼 광고 30억원과 경기장 명칭권 15억원 등 45억원, 강원FC는 강원랜드로부터 4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FC는 광주은행으로부터 ACLE 진출에 따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이 추가된 40억원을 받았지만 내년 후원 규모는 미정이다.

광주 구단과 광주시, 광주시의회가 삼박자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싸

움을 펼치며 ACLE 지원금 10억69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내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같은 금액이 부활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광주 구단과 광주시, 광주시의회가 각기 다른 시선과 호흡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광주가 시도민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탄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영입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
3년 연속 20홈런 거포 야수
“공격과 수비 쓰임새 많아”



KIA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33)을 영입하며 2025 시즌 활약할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KIA는 26일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Patrick Wisdom·우투우타)과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위즈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 출신으로 신장 188cm, 체중 99kg의 체격을 지녔으며 메이저리그에서 7시즌, 마이너리그(이하 트리플A)에서 7시즌 동안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455경기에 출장해 통산 타율 0.209(1311타수 274안타)와 88홈런, 23도루, 207타점, 192득점, 출루율 0.291, 장타율 0.459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439경기에 나서 타율 0.253과 391안타, 89홈런, 277타점, 248득점을 기록했다.

그는 올 시즌 시카고 컵스에서 75경기에 출장해 타율 0.171과 27안타, 8홈런, 23타점, 16득점을 올렸고, 마이너리그에서는 9경기를 뛰며 11안타, 3홈런, 10타점, 9득점, 타율 0.407을 기록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2021~2023 세 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했고, 한 시즌 최대 28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장타력을 보유한 선수이다. 장타력과 더불어 평균 이상급의 주루 스피드와 준수한 송구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IA 관계자는 “위즈덤은 1루, 3루와 외야 수비까지 가능한 선수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쓰임새가 높은 선수이다”면서 “중심타선에서 팀 장타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A는 앞서 올시즌 ‘우승 공신’ 투수 제임스 네일(31)과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40만 달러·연봉 12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에, 우완투수 아담 울러(30)와 총액 100만 달러(계약금 20만 달러·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2024 하반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수여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대학부 우수선수들이 26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내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광주시를 대표하는 대학부 우수선수 12개 종목, 85명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장 선거 6파전... 역대 최고 경쟁률

내년 1월14일 선거 실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6명의 후보들이 출마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14일 실시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이기흥 제41대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

영 대한세탁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전 한국체육학회 회장 등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이로써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6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4년 전 41대 선거 때 4명이 등록한 적은 있지만 6명이 후보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5일 후보 등록을 마친 6명의 후보는 26일부터 내년 1월 14일 선거일 전날까지 19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1인 포함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는 26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19일간 문자메시지 포함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SNS 포함 전자우편, 워터 및 어깨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7일 선거인에게 발송되며,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선거일 투표 개시 전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진행된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며, 선거인단 230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최동환 기자

KIA, 2025년 코칭스태프 보직 확정

KIA 타이거즈가 2025 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26일 KIA타이거즈에 따르면 1군은 이범호 감독을 중심으로 손승락 수석 코치와 김주찬 QC 코치, 정재훈·이동걸 투수코치, 홍세완·조승범 타격 코치, 조재영

작전 코치, 윤해진 주루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 타케시 베타리 코치로 구성된다. 퓨처스팀은 진갑용 감독과 이상화·이정호 투수 코치, 최희섭 타격 코치, 이현곤 작전·주루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한다.

잔류군은 김석연 총괄 코치와 서덕원 투수 코치, 박효일 수비 코치로 구성을 마쳤다.

KIA 관계자는 “각 파트별로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을 잘 지도해준 덕분에 통합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2025 시즌도 변함없이 선수단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